

한국, '일하는 노인' OECD 1위



▲ 안양시 주최 '2022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채용 안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etoday.co.kr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기대 수명까지 늘고 있는데, 노후 소득 안전판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지난 25일 '매일경제'가 통계청 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전한 바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나선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336만5,000명으로 1년 새 8.1%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다.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37.3%로 사상 최대까지 올랐다. 노인 10명 중 4명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29.6%에 그쳤지만 고령화 현상이 빨라지며 2020년 35%를 넘어서더니 지난해 40%에 육박했다.

경제 활동을 하는 한국의 노인들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은 편이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3%(2021년 기준)으로 OECD 1위다. 미국(18.9%), 영국(10.5%)은 물론 초고령사회인 일본(25.6%)과 비교해도 크게 높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은퇴 연령은 평균 72.3세로 법정 정년인 60세 보다 12.3세나 많아 OECD 38개국 중 가장 높다. 국민연금 급수급 개시(2023년 기준 63세) 이후에도 노인들이 노동 시장에 남아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다.

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유소년 인구 '반토막'

초저출생 문제가 계속되면 2040년 한국의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합계출산율이 0.7명에서 반등하지 않고 지속할 경우 유소년(0~14세)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49.6% 감소한다. 이는 통계청 전망보다 125만명 적은 수준이다.

예정처가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혼인 건수는 2011년 32만9,000건에서 지난해 19만2,000건으로 41% 줄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도 감소하고 있다. 2012년 56.5%의 청년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지난해에는 36.4%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도 출산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



▲ 서울의 한 종합병원 신생아실의 빈 침대들. 사진=국민일보

아이를 낳는 평균 초산 연령은 2021년 33세로 2000년의 27.7세보다 5.3세 높아졌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총인구 감소 및 학령인구, 병력자원, 근로 인구 등의 감소로 인구 구조 변화를 가져온다"며 "출산율 하락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 싸서 경기도로 간다... 탈 서울 현상 가속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SBS Biz'가 국가 통계포털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지난 2010년 1,031만 2,545명 이후 1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9월 기준 940만 7,540명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동안 183만 9,717명이 늘어난 1,362만 6,339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출지/전입지별 이동자수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간 순이동자수는 6만 234명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 중인 이삿짐 배송 업체 차량들. 사진=shuttersrock

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 수도권인 인천 순이동자수 1만 1,500명의 약 5.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서울 인구의 상당수가 경기도로 유출되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10억 4,632만 원)는 경기도(5억 1,319만 원)보다 약 2배가

높다. 또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5억 2,024만 원으로 경기도 아파트 평균매매가를 웃돌아 서울 전셋값으로 경기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예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6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